

31대 총무원장 2월24일 선출

2월14~16일 3일동안 후보 등록 각 교구 선거인단 2월9~13일 확정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오는 2월24일 실시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21일 중앙총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제98차 회의를 열고 31대 총무원장 선거를 2월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확정된 선거일정을 보면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총무원장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10일 전인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며, 후보자들은 14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10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각 교구 선거인단의 선출은 2월9일부터 13일까지다. 선거위는 이같은 선거일정을 1월24일자로 공고했다.

중앙선거위는 또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기간(2월 14~2월23일) 외에 후보자들이 신상명세나 정책공약의 개요를 공식적으로 광고 또는 홍보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공식적인 선거광고는 후보 등록 후 중앙선거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1회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선거결과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회의에서 선거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나 성명서를 발표해서는 안되며,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후보부 조사를 통해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스님은 선거일정 확정과 함께 발표한 대 중도 담화문에서 "중원중법에 따라 엄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현행 선거제도가 세속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왜곡된 모습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중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선거 어떻게 치르나

●선거운동 방법은?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통해 종책이나 인물에 대한 홍보는 할 수 없다. 즉, 중앙선거위가 규정한 공식 선거광고 한 차례 외의 모든 광고는 금지된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광고가 아닌 인터넷이나 토론회 등 언론을 통해 종책이나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다. 선거대책본부도 2월14일 이전에 운운이 가능하다.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어떻게

기관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후보를 비난하거나 편드는 광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총회의원 81, 선거인단 240명 투표권 신문·방송 통한 인물·정책 홍보 금지

●선거인단 구성은?

24개 교구본사에서 각 10명씩 선출되는 교구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총회의원 81명 등 모두 321명이 투표권을 갖는다. 각 교구는 교구총회를 통한 선거나 교구본사 주지의 선거인단 지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인단을 뽑게 된다.

●과열·혼탁 막을 방안은?

현재의 중법으로는 사실상 어렵다. 사전선거에 대한 중법 조항이 없어 규제가 용이하지 않다. 또 중앙선거위도 선거행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심성과 관행에 따라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에 머물고 있다.

총본산 성역화 등 25개 사업 추진

조계종 을 중무지표 발표

조계종이 올해 중무지표를 '한국불교 중흥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총본산 성역화·불사 및 수행체계 정립 등 25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중앙총무기관 중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첫번째 중무지표인 '종단 발전의 정진적·물질적 기반 조성' 아래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및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

진 △총단수행체계 정립 등 6가지다.

두번째 중무지표는 '불교전통문화의 대중화 및 사회적 활동 증진'으로,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 지원 및 교류 확대 등 7개 사업이 진행되며, 세번째 중무지표인 '종단 교육 시스템 및 내용 개선'에서는 기본교육기관 재정비 방안 연구 및 추진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네번째 중무지표 '종무행정 시스템, 종단 정보화 기반 구축'에서는 한국불교정보화사업단 설립 운영 등 6개 사업이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탈북자 쉼터 개설 등 진각복지재단 사업계획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 하는 '탈북자 쉼터'가 상반기 내 설립된다.

진각종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효암)은 최근 밝힌 2003년 신년사업계획을 통해 '북한을 이탈해 국내에 정착을 하려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탈북자 쉼터'를 연다'고 밝혔다.

진각복지재단이 올해 주요 복지사업의 하나로 확정한 '탈북자 쉼터'의 운영 계획

에 따르면, 국정원과 통일부의 협조를 얻어 상반기 중 국내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쉼터를 개설, 상시 운영한다. 쉼터에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심리적인 적응을 돕고 직업 알선을 추진하는 등 탈북자들의 자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쉼터 개소 장소는 현재 물색 중이다.

또한 진각복지재단은 인도적 차원의 북한 지원사업, 민족복지 실천 세미나 개최, 북한 탁아소 설치 등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내 진각종 포교시설이 생필품 지급 등 탈북자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 중이다.

강유신 기자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스영 뒤편(우리스영 주차장 아음)

미국 콜롬비아대 중세일본사연구소 한국비구니사연구 준비워크숍

미 콜롬비아대 2월14~15일

비구니사 연구 발표회'를 위한 준비 워크숍을 연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 해원 스님과 이향순 조지아대 교수, 조은수 미시간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kgim@buddhapia.com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신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나타 기사취재 등 총재에게 생략되는 사안(사건, 사고, 마담, 사신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환영합니다. 제보 기사는 불교법원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파라미타 국제캠프 올 주력사업"

파라미타 청소년협 새회장 원택스님



▲조직장비 계획이 있다면
—아직까지 경남, 강원, 광주 지역에 지부가 없다. 우선 이들 3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해 전국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사무국과 지방의 지부, 지회의 연관성과 조직력을 키워 파라미타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열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탁났한 스님과 달라이라마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어려운 불교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 해석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맞게 대기 설법을 했듯이 청소년 포교도 이와 같다. 교재 하나를 만들더라도 한글세대의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현장법사의 구법계, 삼국유사 등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활용한다면 불교와 청소년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울 때 중책을 맡았는데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회, 신도회 등의 여러 계층 가운데 청소년들의 포교가 가장 취약한 지금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주위에서 벌써부터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이 부담감도 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포교원과 파라미타 실무자들, 그리고 일선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파라미타 조직을 정비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언론으로 질적 양적 발전을 선도해온 현대불교신문이 지역포교에 동참 하심 실천하고 역량을 있는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1)모집 지역

- 강원북부: 춘천, 철원
- 중 부: 충주, 제천, 음성
- 경북북부: 경주, 포항
- 울산광역시
- 강원남부: 원주, 동해, 삼척, 정선, 영월
- 중 남: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논산, 공주, 부여
- 경남서부: 김해, 마산, 창원
- 제주 지역

2)포교사업 내용

지역내 구독확장, 광고수수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3)채용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증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03년 2월 15일(토)
- 제출방법: 우편(15일)까지 도착받까지 유선) 또는 본사 방문 접수

4)채용처

(우) 110-170. 서울 중모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팀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정법사 중창불사 "불교문화복지회관" 건립

마산 도심에 위치한 통도사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는 우리나라가 일제 정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갖은 탄압과 혹사를 당하고 있을 때 불법으로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을 구제하고자 당시 양산 통도사 주지로 계셨던 구하(九荷) 대선사께서 1912년에 본 사찰을 창건하셨습니다.

초대 주지로 경봉 대선사께서 취임하셨으며, 이후 불교계의 많은 큰스님들께서 거쳐가신 곳이며, 또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곳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도모한 민족 사관의 도량입니다.

이러한 도량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도시화 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쇠락해지고 불법 흥포와 민생 구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도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을 하나로 모아 도량을 새롭게 중창하여 불법 흥포와 민생구제에 앞장서고 21세기 정보화, 다양화 사회에 걸맞는 시민의 사찰로 거듭나고자 불기 2545년 8월 19일에 정법사 중창불사 "만불전 건립 및 만불불안" 천일기도 임재를 봉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8월 31일 마산 로얄호텔에서 지역사회 각계 지도자 여러분들을 고문 및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마산시민을 위한 불교문화복지회관 건립 추진위 창립" 행사를 성황리에 가진바 있습니다.

이무쪼록 정법사의 뜻깊은 중창불사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 불자님과 지역 사회의 각계 지도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동참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불기 2547년 1월 일



<불사 추진위 고문 및 운영위원>

■고 문
강삼재, 김정부, 김효일, 황철근, 배종갑, 이순항, 김조일, 이수우, 이상근, 김상실, 허종성, 강주성, 안홍준

■운영위원
이광석, 강재호, 고용석, 고호근, 권영호, 권윤홍, 김대환, 김미윤, 김상현, 김순규, 김여환, 김영규, 김영달, 김영현, 김제현, 김진백, 김태문, 김형성, 김형춘, 남태욱, 노치용, 노화순, 민소현, 박권주, 박성원, 박영근, 박종수, 박철홍, 박현호, 배대균, 배문수, 백상원, 변상봉, 변재정, 서인숙, 손중호, 손천수, 송인식, 양영조, 윤봉현, 윤영호, 윤재근, 이광문, 이상룡, 이외율, 이인호, 이철호, 이종진, 이처기, 이태일, 이필이, 임영주, 장권현, 장영준, 정규덕, 정목일, 정찬현, 조남규, 조민규, 조병우, 조순재, 조택재, 진종만, 진종삼, 최명해, 추정자, 하연승, 한철수, 허종태

■일만불조성 동참 : 1인 1佛 50만원(3년분할 납부가능)

■동참 계좌 : 농 협 849-02-321986
경남은행 603-35-0002651
국민은행 651-21-1076-628
우 체 국 612499-01-001633
예금주 : 마산포교당 정법사

■문의처 :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번지
055)246-8393, 245-6544

통도사 마산 중앙포교당 정법사 주지 호암 지대